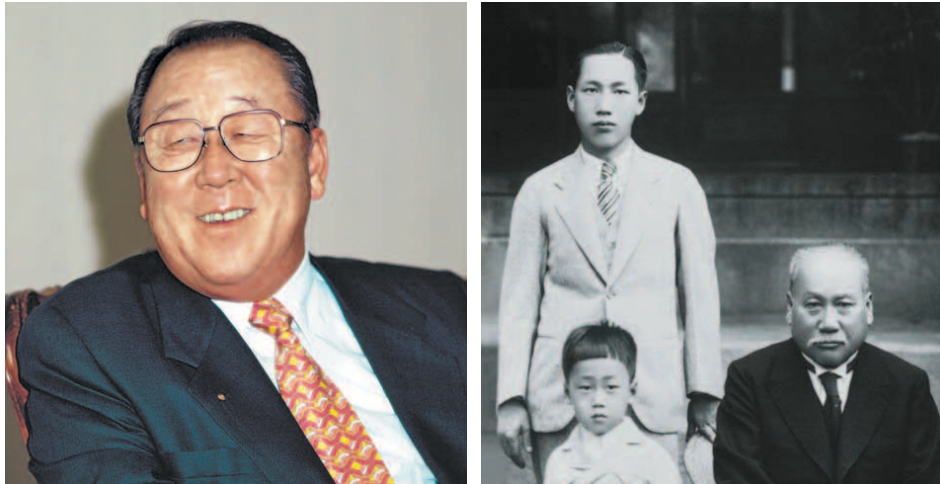


두산그룹 박용곤 명예회장 별세 | 스포츠를 사랑한 거인

한국 프로야구 1호 'OB 베어스' 창단 주역

프로2군·어린이회원도 최초 운영
병중에 휠체어 타고 훈련장 찾기도
선수들과 스킨십 즐긴 스포츠 대부



고 박용곤 두산그룹 명예회장은 끊임없는 기업 혁신과 결단력으로 두산그룹을 중공업 중심의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시킨 기업가였다. 한편으로는 '침묵의 거인'으로 불릴 정도로 신중한 언행과 남다른 야구사랑으로도 유명했다. 오른쪽 사진은 박용곤 명예회장이 어린 시절에 할아버지 박승직 창업주(오른쪽), 아버지 박두병 두산 초대회장과 함께 찍은 모습. 뉴스·스포츠동아DB

한국 경제의 '큰 어른' 박용곤 두산그룹 명예회장이 3일 저녁 노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87세. 고인은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기업인 두산(1896년 창업)이 오늘날 자산 30조 원, 재계순위 13위의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한 기틀을 마련한 주역이다.

박용곤 명예회장은 1932년 박두병 두산그룹 초대회장의 6남1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경동고를 졸업하고 6.25 전쟁 때인 1951년에는 해군에 자원입대해 참전용사로 싸웠다. 제대 후 미국 워싱턴 대학에서 경영학을 공부한 뒤, 1960년 한국산업은행 공개 6기로 사회생활을 시작했다. "남의 밑에 가서 남의 밥을 먹어보아 노고의 귀중함을 알 것이고, 아랫사람의 심경을 이해할 것이다"는 선진의 뜻에 따른 것이었다. 두산그룹에는 1963년 동양맥주(현 OB맥주)의 사원으로 입사했다. 이후 한양식품 두산산업 대표를 거쳐 1981년 두산그룹 회장에 올랐다.

●과감한 결단으로 '글로벌 두산' 초석 닦아
두산은 박승직 창업주 시절 포목점을 하다가 2대인 박두병 초대회장 때 주력 사업을 식음료로 바꾸었다. 3대인 박용곤 회장은 끊임없는 기업 혁신으로 사세를 키워 두산을 중공업 그룹으로 탈바꿈했다.

경영자로서 박 명예회장의 결단력은 1998년 그룹의 대표사업인 OB맥주 매각에서 잘 나타난다. 당시 그는 "그룹 모태인 주류 사업을 어떻게 매각할 수 있느냐"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그룹의

미래를 위해 과감한 변신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이후 식음료 사업 매각 대금을 기반으로 2001년 한국중공업(현 두산중공업), 2005년 대우종합기계(현 두산인프라코어), 2007년 바넷(현 두산바넷) 등을 인수하며 그룹 주력사업을 중공업으로 바꾸었다.

●인화와 인재 중시, 남다른 야구사랑
박 명예회장 말수 적은 과묵한 성품으로 세계에 알려져 있다. 그래서 붙은 별

명이 '침묵의 거인'. 언제나 상대의 말을 경청한 뒤 자기 생각을 간결하게 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 위치에서 무슨 말을 하면 그 말은 모두 약속이 된다"며 "지키지 못할 말은 하지 말아야 한다"며 늘 신중한 언행을 강조했다.

또한 박 명예회장은 프로야구가 오늘날 한국 최고의 인기 스포츠로 자리잡는데 큰 기여를 했다. 한국 프로야구가 출범한 1982년에 맞춰 가장 먼저 야구단 OB 베어스(두산 베어스 전신)를 창단했고, 어린이 회원 모집 역시 전 구단 중 가장 먼저 시작했다. 지금은 당연한 듯 모든 구단이 운영하는 2군을 한국 프로야구에서 가장 먼저 창단한 것도 박 명예회장의 뜻에 따른 것이었다. 지방으로 거동이 불편해진 뒤에도 그는 휠체어를 타고 두산의 전지훈련장을 찾아 선수들과의 직접적인 스킨십을 통해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유족으로는 장남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 차남 박지원 두산중공업 회장, 장녀 박혜원 두산매거진 부회장 등 2남 1녀가 있다. 빈소는 5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차려지며, 장례는 가족장으로 치른다. 발인과 영결식은 7일이며, 장지는 경기 광주시 탄벌동 선영이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한눈으로 보는 경제

코스피지수	2190.66	↓	-4.78
코스닥지수	748.07	↑	+16.82
日 닛케이 지수	2만1822.04	↑	+219.35
中 상하이 종합	3027.58	↑	+33.57
국고채 금리 (3년물, 연%)	1.83	↑	+0.02
환율 (원/달러)	1126.00	↑	+2.00
국내금값 (원/그램)	4만6767.88	↓	-1054.84



양중훈 상명대 교수(왼쪽)가 최연배 김정문알로에 대표로부터 사외이사 위촉장을 받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제공 | 김정문알로에

양중훈 교수, 김정문알로에 이사 선임

알로에 전문기업인 (주)김정문알로에는 4일 양중훈 상명대 디지털이미지학과 교수(58)를 사외이사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김정문알로에는 "본격적인 유통채널 확장과 함께 소비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기 위해 이 분야 전문가인 양 교수를 선임했다"고 전했다.

양 교수는 중앙대 사생활학과 졸업한 뒤 미국 오하이오대에서 비주얼 커뮤니케이션 석사학위, 호주 로열멜버른공대(RMIT)에서 예술학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한국사학회회장을 맡고 있다. 정용문 기자 sadzoo@donga.com

1 박용곤 두산그룹 명예회장 약력 △1932년 서울 생 △경동고 졸, 미국 워싱턴대학 경영대 졸업(1959), 충남대 명예경영학 박사(1982), 연세대 명예법학 박사(1995) △1960년 한국산업은행 입사, 1963년 동양맥주(주) 입사 △1966년 한양식품(주) 대표이사 사장, 1973년 동양맥주(주) 대표이사 부사장 △1974년 합동통신사 대표이사 사장 △1981년 두산그룹 회장 △1982년 프로야구단 'OB BEARS' 구단주 △1983년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1996년 두산그룹 명예회장 △1998년 두산건설(주) 대표이사 회장 △2008년 학교법인 중앙대학교 이사

현대차, 글로벌 5개사와 상용수소차 충전 부품 개발

현대자동차가 상용수소전기차 시장 확대와 기술 표준화를 위해 글로벌 화학·자동차 업체와 공동 개발에 나섰다. 현대자동차는 2월 19일(현지시간) 현대자동차, 산업용 가스회사 에어 리퀴드, 수소 충전 설비회사 벨, 수소전기트럭 생산 업체 니콜라, 에너지 및 석유화학 그룹 쉘,

토요타 등 6개사가 상용수소전기차의 고압충전 표준부품 개발을 위한 글로벌 컨소시엄 구성 및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공간이 한정된 수소탱크에 가스 상태의 수소를 효율적으로 넣기 위해서는 고압(700bar)의 충전 기술과 이를 견디는 자동

차 및 충전기의 표준화가 필요하다. 현대차의 승용 수소전기차인 넥쏘는 고압(700bar) 충전 기술 및 부품 등이 표준화됐지만 상용 수소차의 경우 아직 고압(700bar) 대응량 충전 기술과 부품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다. 이번 컨소시엄은 상용수소전기차의 리셉터탈(수소 주입구)과 노즐(리셉터탈과 연결), 호스(노즐과 연결), 브레이크유웨이(충전 중 외력 작용시 부품 손상없이 노즐, 호스 결합체 분리) 등의 충전 설비 부품을 개



현대차 3세대 신형 수소소버스. 사진제공 | 현대차
발하고, 충전 기술의 국제 표준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올해는, **최다합격 에듀윌**
2년 연속 최다합격 공식인증 에듀윌

에듀윌

합격생을 위한 취업지원센터 운영

강주현의 퍼즐월드

WWW.경품광고퀴즈.kr WWW.매직스도쿠.kr

주택관리사 합격 이후 취업 고민의 답은 '인맥북'

주택관리사란 아파트 관리소장으로서 행정 업무와 기술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가로 주택관리사가 되기 위해서는 매년 시행되는 2차에 걸친 주택관리사 자격증 시험에 응시해 합격해야 한다.

그러나 각고의 노력 끝에 시험에 합격한 수험생들도 새로운 난관에 부딪히게 된다. 바로 취업이다. 주택관리사로 활동 중인 아파트 관리소장들은 주택관리사가 되기 위해 중요한 것은 '인맥'이라고 입을 모은다. 주택관리사는 채용 정보도 알아보기가 쉽지 않을뿐더러 실제로 알음알음 채용이 많기 때문이다.

이에 일부 교육기관에서는 주택관리사 시험에 합격 후 취업에 고민하는 자사 출신 합격생들을 위해 '취업지원센터'를 운영한다. 에듀윌 주택관리사 취업지원센터에서는 자기소개서 작성법부터 면접 팁, 현장 실사 기회 등을 제공한다.

이는 전국구 규모의 합격자 네트워크를 보유한 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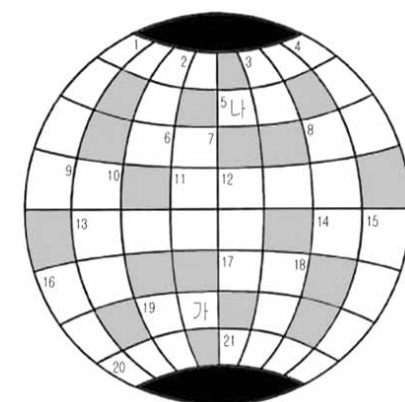


이기에 가능한 일이다. 실제로 에듀윌 주택관리사 동문회는 자사 출신 학원과 온라인 강의 출신 합격자로 구성돼 서로 친목을 도모하며 정보 교류를 하는 것은 물론 후배 합격생들의 길잡이가 되기도 한다. 실제로 실무를 시작하면 수험 생활 동안 열심히 외운 용어와 법

규들이 실무와 괴리감이 있을 수 있다. 주민들의 크고 작은 분쟁 앞에서는 오히려 지식보다 경험이 더 중요하기 때문. 이럴 때 선배들로부터 조언을 받아 업무에 적응해 나가는 것이다.

에듀윌은 이를 위해 매년 주택관리사 합격생들로 구성된 인맥북을 제작하고 있다. 올해도 작년 제21회 시험에 합격한 합격생들을 포함한 인명록을 발간해 자사 출신 생들에게 배포했다.

날말문제



■ 가로 열쇠 01. 크게 놀라 얼굴 빛이 하얗게 변함. "○경○색" 03. 자신의 가치나 능력을 믿고 당당히 여기는 마음. 05. 자동차 따위에 기름을 넣음. 06. 소리를 내는 기관. 08. 임금의 얼굴. 09. 목적을 이룸. 11. 기이하고 빼어난 산. "기○수○"

13. 대중없이 함부로 지껄이는 말. "○튼○리" 14. 빛·세금 등을 온통 식쳐 줌. 16. 높은 곳에서 내려다봄. 17. 일을 처리해 나가는 솜씨와 께. 19. 편들어서 감싸 주고 보호함. 20. 바다에서 해산물을 채취하는 일을 하는 처녀. 21. 처지를 바꾸어서 생각함. "역○사○"

■ 세로 열쇠 01. 크게 외쳐 꾸짖는 한마디의 소리. "○갈○일○" 02. 전에는 있었다고 하나 지금은 찾아볼 수 없게 된 별. '○각○' 03. 법률의 범위 안에서 남에게 구속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행위. 04. 아름다움과 추함을 식별하는 안목. 07. 기다리는 곳. 08. 잉어와 닭을 함께 넣어 끓인 국. '○붕○' 10. 멍 빈 듯한 허전한 느낌. 12. 끝없이 스며드는 시름.

날말정답

단어 이어가기: 날말을 모두 풀 돈을 가, 나를 이어놓으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국가 이름이 됩니다.

